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4:30pm
주일	8:30am - 1:30pm

(다해) 주님 성탄 대축일 - 밤 미사

입당 : 99 파견 : 102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시편 96, 1-2, 2-3, 11-12, 13)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 Today is born our Savior, Christ the Lord.

(Psalm 96:1-2, 2-3, 11-12, 13)

- Sing to the LORD a new song; sing to the LORD, all you lands. Sing to the LORD; bless his name. ◎
- Announce his salvation, day after day. Tell his glory among the nations; among all peoples, his wondrous deeds. ◎
- Let the heavens be glad and the earth rejoice; let the sea and what fills it resound; let the plains be joyful and all that is in them! Then shall all the trees of the forest exult. ◎
- They shall exult before the LORD, for he comes; for he comes to rule the earth. He shall rule the world with justice and the peoples with his constancy. ◎

(다해) 주님 성탄 대축일 - 낮 미사

입당 : 102 파견 : 107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시편 98, 1, 2-3, 3-4, 5-6)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All the ends of the earth have seen the saving power of God.

(Psalm 98:1, 2-3, 3-4, 5-6)

- Sing to the LORD a new song, for he has done wondrous deeds; his right hand has won victory for him, his holy arm. ◎
- The LORD has made his salvation known: in the sight of the nations he has revealed his justice. He has remembered his kindness and his faithfulness toward the house of Israel. ◎
- All the ends of the earth have seen the salvation by our God. Sing joyfully to the LORD, all you lands; break into song; sing praise. ◎
- Sing praise to the LORD with the harp, with the harp and melodious song. With trumpets and the sound of the horn sing joyfully before the King, the LORD. ◎

2025년 정기 회년

주제: 희망의 증인

기간: 2024년 12월 24일 (성탄대축일 밤미사) - 2026년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

성 베드로 대성당 (2024년 12월 24일) 성문 개방식을 시작으로 2025년 정기 회년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Rebibbia 교도소 (2024년 12월 26일), 성 요한 대성당 (2024년 12월 29일), 성모 마리아 대성당 (2025년 1월 1일), 성 바오로 대성당 (2025년 1월 5일) 성문을 개방할 것입니다.

회년 로고의 주요 요소 및 그 의미

1. **네 명의 인물:** 네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사방'에서 모인 모든 사람을 상징하며, 민족과 문화를 초월한 일치와 형제애를 나타냅니다.
2. **십자가:** 맨 앞의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3. **파도의 물결:** 출렁이는 파도는 삶의 여정이 항상 평탄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개인적 상황과 세상사의 우여곡절 속에서 더 큰 희망이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4. **닻으로서의 십자가:** 파도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닻은 십자가의 아랫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닻은 흔히 희망을 상징하며, 폭풍우 속에서 선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희망의 닻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 **공동체의 여정:** 순례자들의 행렬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십자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역동적인 여정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느라 휘어진 형상은 십자가의 역동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6. **표어:** 로고에는 2025년 회년의 표어인 '희망의 순례자들'이 녹색으로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희망을 품고 함께 순례의 길을 걷도록 초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A 대교구의 순례성당 :

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 Los Angeles

Mission Basilica San Bonaventura, Ventura

회년 전대사 :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포하신 2025년 정기 회년 동안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교황청 내사원 (별지 참조)

회년의 기원은 레위기 25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년'은 히브리어 '요벨(Yobel)'에서 유래했습니다. 회년의 선포를 알릴 때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의 회년은 7년 주기의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50번째 되는 해에 선포되었습니다. '노예해방, 부채탕감, 토지반환, 안식'이 회년에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스도교회에서는 1300년 보니파시오 8세 교황때 회년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후 100년마다 지내고자 했지만, 1343년 클레멘스 6세 교황은 50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변경했고, 1389년 우르바노 6세 교황은 33년 주기로 변경했는데, 그 이유는 33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하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그후 1470년 식스투스 4세 교황은 25년으로 회년 주기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50년 주기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번은 회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25년 주기를 확정한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을 "대회년"으로 선포하며, 새로운 천년기의 시작을 하느님께 봉헌하였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를 주제로 한 자비의 특별 회년(2015-2016)을 선포하여, 자비의 하느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